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8호 [루게 제25982호] 주체107(2018)년 4월 18일(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을 또 다시 만나시여 담화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17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를 또 다시 만나시여 담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가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의 우리나라 방문이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축하하시고 제31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을 빛나게 장식하여준 중국동지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예술단의 이번 우리나라 방문이 훌륭한 시기에 진행되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 매우 훌륭한 방문이었으며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뉴대와 호상 존경의 감정을 더욱 두텁게 하고 조중문화 예술교류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고 언급하시였다.

송도동지는 조선인민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기들을 형제적 친근감을 가지고 가장 열렬히 그리고 성대히 환영한데 대하여

감동깊이 말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하여 중국당과 중국인민에 대한 조선당과 조선인민의 각별하고도 친절한 정을 뜨겁게 느끼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직접 취하신 조치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중국예술단의 이번 방문성과

는 전적으로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의 특별한 친분관계와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중앙은 앞으로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정치적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 전통적친선단결의 기반을 토대로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중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송도동지와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배왕을 활발히 하며 두 당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도 보다 강화해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송도부장이 귀국하면 뜻깊은 시기에 예술단을 파견하여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준 조선인민의 가장 훌륭한 벗이며 가장 친근한 동지이신 습근평총서기동지와 중국인민에게 보내는 뜨거운 인사를 꼭 전하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시였다.

담화는 시종일관 동지적이며 친지하고 친선의 정 넘쳐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과 중국예술단 예술인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과 중국예술단 예술인들을 위하여 4월 17일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리설주녀사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권혁봉동지, 김병호동지, 김성남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성원들과 우리 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만찬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공화국 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 그리고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와 중화인민 리군동지, 중국 예술단 예술인들 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군동지가 초대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만찬장앞에서 송도부장을 비롯한 중국예술단 예술인들을 맞이하시였다.

진실한 정을 맺고 더욱 친숙해진 중국동지들과 함께 한 만찬은 친목하고 화기에 찬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만찬이 끝난 후 송도동지를 비롯한 중국동지들과 따뜻한 작별인사를 나누시며 뜨겁게 배려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송도동지는 중국예술단 전체 성원들을 대표하여 평양방문기간 특별하고도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수리아투립 72돐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훌륭한 령도밑에 최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수리아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다시금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제107(2018)년 4월 17일 평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로씨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라지오소프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4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출판사 사장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로작발행식을 진행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작을 통하여 김일성주석이사야말로 20세기의 가장 로속하고 세련된 정치가, 절충한 수령, 위대한 인간이라는 데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세상에 이를 남긴 정치가들이 적지 않지만 김일성주석처럼 10대의 어린 나이로부터 80고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신 위인은 없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최대유산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발포 40돐 기념 보고 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발포 40돐 기념 보고 회가 17일 중앙로동자대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로두철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념보고를 오수용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몸소 작성하시고 주제 67(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채택발포하도록 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법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이룩된 로동생활분야에서의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참다운 인민의 로동헌장, 로동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과학적인 로동법전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은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기 위한 공산주의교양목본이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준칙입니다.》 보고자는 사회주의로동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더욱 훌륭히 보장하고 로동행정사업을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는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과 파업을 완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로동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의 자랑한 성과를 끊임없이 창조하였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가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동행정사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회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로동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정면적으로 이끄시였다고 말하였다.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로동생활기풍을 세우며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힌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사회주의로동제도의 본질적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는 위대한 무기로 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동문제해결에 관한 사상과 업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끝없이 빛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사회주의로동법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동제도로서의 우월성과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

시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의 강화발전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전철히 옹호하고 높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화국상권 일흔흔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동원전에서 주체조선근로자들의 강요한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쳐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적인 로동관점을 가지고 같은 초소에서 공민적의무를 다하며 로동생활에서 혁명적투쟁의 미풍과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본때를 적극 살려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행정일군들과 로동선전원들은 혁명적인 총동원이 벌어지고있는 전투장마대에 달려나가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로동선전사업에 앞장서고 로동자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로동행정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의 전투목표를 기이이 점명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국 방문 성과를 여러 나라 단체들이 열렬히 축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중국방문성과를 축하하여 2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네 팔선공정정치지침회의는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각께서 마련해주신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발전시켜 나가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역사적적료로 된다고 밝혔다.

영국선공정치연구회회는 김정은동지의 중국방문소식이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

인 친선관계가 다시금 과시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백두산세조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세계 많은 나라들과의 친선협조를 발전시키시었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식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시었으며 세계사회의 운동의 강화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고계신다.

우리는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시고 품어오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과 인류자주위업실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 그이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나이지리아조선친선협회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중친선은 조중 두 나라 로세대명도들에게 의미있는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된다. 김정은동지의 중국방문성과를 축하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일성학급 명명식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학급 명명식이 14일 말리 프로그래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장전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관이 행사장에 모셔져있었다.

말리의 정부 성, 정당, 기관의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 등이 참가한 행사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말리 프로그래 학교 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106째

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내가 청년시절 부터 열렬히 흠모하여온 위대한분 이시다.

주석께서 집필하신 저서들을 탐독하면서 그이이시야말로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걸출한 수령이심을 깊이 절감하였다.

말리와 조선사이의 친선의 역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 질것이다.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학급 명명식을 진행하는 것은 김일성학급이 있는 우리 학교에 있어서 두번째로 되는 경사로 된다.

이것은 또한 존엄높은 조선인민과의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는 좋은 계기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린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교육성 국장은 말리 프로그래 학교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

무궁도록 만발하라 태양의 꽃이여

4월, 따사로운 봄빛을 받아 하루가 다르게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환희로운 계절이다.

바로 이 계절이면 이 땅의 천만군민 모두의 가슴가슴을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어오르게 하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더욱 활짝 피어난다.

진분홍보라빛의 심비론은 지대, 송이 마다 청신한 기운을 내뿜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달아온 심장마다에 안아 보는 인민의 감회는 참으로 뜨겁다.

과연 언제부터였는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여 외세의 발걸음에 신음하며 수난에 휩쓸렸던 이 땅이었다.

망국노의 처지를 통탄하며 살갓꽃이 헤매던 그때에는 이 땅에 피어나는 꽃들이 사람들의 감흥을 자아낼 수 없었다. 《봉선화》의 구슬픈 곡조가 나라 없는 백성의 가슴을 더욱 허비했다.

망도 그 땅, 민족도 그 민족이건만 온기는 세상사람들의 경탄의 시선을 모으며 불멸의 강국, 힘있고 존엄높은 인민으로 눈높이 자라날 때가 이르렀다.

위대한 전환의 역사를 펼쳐주시는분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이다.

진정 우리 수령님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일성화는 나라의 국보이며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일 것이다.》

여로부터 꽃은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와 축원의 상징으로 되어있다.

세상에는 상냥로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위인을 존중하고 시대를 반영하려는 인간의 리상과 념원이 최상의 수준에서 집대성된 불멸의 꽃, 희세의 명화는 없었다.

김일성화는 단순히 자연이 피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주체의 해발로 세계인민들이 나아가길 밝혀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매혹된 인류의 다짐있는 흠모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칭송의 꽃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인류사상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거창한 창조와 빛나는 혁명실천으로 인민대중이 주인된 역사의 새시대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위대한 사상과 비범한 명도, 고매한 품도 만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세인을 경탄시킴인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을 꽃으로 상징하는것이아말로 진보적 인류의 더없는 리상이고 념원이었다.

진보적인류의 그러한 마음을 안고 김일성화가 이 세상에 태어난것은 50여년전이었다.

주제 54 (1965)년 4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는 기간 이 나라의 인민들은 우리 수령님을 최고의 국빈으로 열렬히 환영하였다.

대우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수카르노대통령의 환대는 더없이 뜨겁고 각별하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보고식물원을 참관할 때였다.

역사가 오래고 세계적으로도 소문이 난 보고식물원에는 관과계통의 꽃들을 비롯하여 열대지방의 진귀한 꽃들이 피어있어 마치 세계화초박람회를 연상케 하였다.

식물원 운실의 어느 한 전시에 들어 트렸을 때 수카르노대통령은 식물원 원장에게서 화분 하나를 받아들더니 어버이수령님께 이 꽃이 어찌가고 문의하였다.

식물원 원장은 이 꽃은 식물원이 이름있는 식물학자가 오래동안의 고심 어린 탐구끝에 키워낸 관과계통의 아름다운 꽃이고 1년에 두번 피는데

한번 피면 2-3개월동안 지지 않고 계속 피어있는 특이한 꽃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해드렸다.

원장의 해설을 들으시며 그 꽃을 한 동안 살펴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꽃이 참 아름답다고, 훌륭한 꽃을 보여 주어 감사하다고 하시며 웃시 웃시였다.

만족해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수카르노대통령은 이 꽃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었으면 한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식물원 원장도 류달리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를 자아내는 진귀한 꽃에 절세의 위인의 존함을 모시는 데없는 행운을 놓치지 않으려는듯 이 꽃을 김일성화로 하고자 자신의 절절한 소망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한없이 검히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꽃까지 자신의 이름을 달았는다고 하시면서 그의 제의를 사양하시었다.

하지만 수카르노대통령은 우리 수령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고때문에 웅장 높은 영광을 지니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조금도 굽히려 하지 않았다.

수카르노대통령은 그후에도 꽃의 이름을 김일성화로 하자는 의향을 거듭 제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수카르노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인민의 소원이 정 그렇다면 우리 인민들에 대한 찬양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인류역사에서 처음으로 위인의 존함을 모신 꽃이 태어나게 되었다.

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보고식물원을 찾으신것을 그때를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자신께서는 현에서 이런 귀중한 인 사물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가,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로 된 영예가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것을 깊이

제 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폐막

〔평양 4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화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지난 11일에 개막되었던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폐막되었다.

축전폐막식이 1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있었다.

폐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성동지, 내각 부총리 건광호동지, 문화상 박은남동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안동춘동지, 관계부서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가 인솔하는 중국예술단과 여러 나라 예술인들, 대표단들, 해외동포예술인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 대사관 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먼저 축전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시상식이 있었다.

중국중앙텔레비죤방송에 축전최고상인 단테특별상이 수여되었다.

로씨야 영.예.빠트니즈키명칭 국립 아카데미아민속합창단, 벨라루스국립음악아카데미아극장 고전발레단, 로씨야 켈리닌스크국립무용합창단, 로씨야 월리나야 스키페 까치크레슬단, 몽골전국협동단애 단테상, 여러 예술인들과 작곡가들, 풍류가수들이 수여되었다.

폐막식에 이어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형제적우의와 친선의 정이 넘쳐흐르는 훌륭한 공연들로 우리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준 중국예술인들은 특별히 준비한 풍물들을 무대에 올려 공연분위기를 이채롭게 하였다.

출연자들은 《발레무용극 〈백조의 호수〉 제2막중에서》를 비롯한 발레소품들을 화려하고 세련된 기교로 행사하여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상 박은남동지가 폐막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전세계인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짐있는 흠모심을 절절히 구가하고 자기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생활감정을 예술적화속으로 잘 보여준 참가자들을 축하하였으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더불어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가 울려 퍼져서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국안가》의 선율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축전기발이 내려워졌다.



김영남동지가 프르나고라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쁘트고리자

프르나고라대통령 당선자

밀로 듀까노비츠각하

나는 당신이 프르나고라대통령으로 선거되는데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프르나고라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7(2018)년 4월 17일 평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참관

〔평양 4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가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17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창근동지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리진근동지가 동행하였다.

중국예술단 성원들이 대학에 도착하자 교직원, 학생들은 꽃다발을 안겨주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친선의 예술사절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손님들은 조선로동당의 깊은 관심과 은정속에 나라의 민속적인 음악예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참관

이제 양성의 원장으로 강화발전되어온 대학의 역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연혁 소개실과 교실, 강당, 음악당 등을 돌아 보았다.

예술단성원들은 주제음악교육의 전당에서 전도유망한 예술인재로 준비

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표시하였다.

송도동지는 감상후에 《예술의 귀중한 재보를 계승하고 민족의 문화를 발양시키지라》는 글을 남겼다.

중국예술단 이에 앞서 16일

우리 당의 송고한 후대사상, 미메사상에 떠받들려 새 세대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의 교양기기로 훌륭히 진행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고 예술소원들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기능공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기업을 세워나가자

기능공정기를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평가기준을 새로 정하기까지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꾼들이 기능공들의 경기를 방방본본있게 조직정행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경기를 단순화하기 위한 마당, 경기를 위한 경기가 아니라 생산적일상과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풍을 거세치게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키잡이를 잡고있는것이 시사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기술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조건과 과학적자산에 기초하여 조직화하고 일관성있게 내밀어야 한다.》

이런 일꾼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선 기능공들의 경기를 통하여 선진생산을 높이는 데 실지 이바지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간것이다.

관공정기를 위한 기능공들의 경기 조직된 실례를 놓고 보자.

일꾼들이 기능공들의 경기를 생산과 밀접히 결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선진생산을 증진한 것은 선관반본론이다. 특히 각종 관공정기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일꾼들은 관공정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덕천관공정기공장에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그들의 열의를 보여주는 데서 용감한 실험을 거듭해 왔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일꾼들은 현실에서 방도를 찾아나가는 과정에 평가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즉 관공정기의 완성정형을 기본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최종평가에 따르는 작업속도와 질도 각각 평가하기로 하였다.

비유하여 말한다면 떡기경기에서 추켜올리기와 끌어올리기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두 경기성적을 종합평가하는 식이었다.

구체화된 평가방법에 따라 각 관공정기에서 평가된 경기자들이 관공정기공장에 모여 경기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대단히 컸다. 단시간 동안에 많은 관공정기를 완성시킨 것은 물론이고 직종별로 기능공들의 수준이 정확히 평가되었다. 이것은 그로써 관공정기공장에 대한 질적평가를 증진하는데서부터 관공정기과 선진공사이의 협조가 강화되어 자기 관공정기의 경기에 참가한 기능공들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났다.

선관반본론에 실지 결연 고리를 푸는 데로 지향시킨 기능공들의 경기의 생활화는 이렇게 실속있게 진행되었다.

연합기업소일꾼들이 기능공들의 경기를 통하여 새 기준, 새

사 리 원 방 직 공 장 에서

사리원방직공장에서 대중의 열의와 창조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해 생산은 1.5배 이상 조직진행하여 생산장성을 추종하고있다.

결과 기능공들의 경기 시작 후 첫 번째 생산은 1.5배 이상 장성하고 모든 기능공들의 기능급수가 한등급이상 올라가는 놀라운 성과로 더욱 세분화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기능공들을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산자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의 질에 대한 책임을 바로하고 그들 모두가 집단과 국가를 위한 높은 기능을 소유하며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공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종업원들이 경기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든것이다.

경기평가기준을 놓고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공장의 일꾼들은 경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의 열의와 애국적 열정을 최대한도로 충분히 장려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일꾼들은 중요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경기에서 기능공들을 직종별로 평가하고 개인등급을 정하는 방식을 택하면 분위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서로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것이 집단을 위한 것이라면 생산장성을 추종하는 것은 오히려 생산장성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이 공장 일꾼들의 열의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생산장성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이 공장 일꾼들의 열의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생산장성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첨단돌파의 주인공들

부형합금철공장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고

얼마전 우리는 부형합금철공장을 찾았다.

벨트콘베어를 타고 파쇄장으로 연속 출몰하는 광석덩어리들, 쇠물을 안고 기온차게 용을 쓰는 화공철로, 강렬하게 발산되는 쇠물빛으로 붉게 물든 출선장...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해가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벼간 승결은 결코 생산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할 자신만만함 배짱을 안고 모두가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킨다. 기능공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과학기술보급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식경제시대의 지금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동자들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기술형의 인간, 지식형의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붉은기를 형성한 구호판을 배경으로 넓게 트인 구호를 걸고서 현대적미감이 내게 일러준 과학기술보급실이 언저였다.

동행한 일꾼은 우리에게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도록 그치지 말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보급실에

서는 공장의 로동자들이 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면서 편편본이 아닌 지식까지 폭넓게 학습한다. 그 덕분에 말했다.

《이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찾는 것이 종업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되었습시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이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는 것을 놓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10여명의 공장로동자들이 열람 본를 넘기며 과학기술보급실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들과 어울려 원격 강의실로 향하였다.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 흔하게 갖추어진 원격강의실은 교육조건과 환경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대변에 없었다.

바로 여기서 구체적인 주제, 발원운영계획에 따라 과학기술 강사가 진행되고있다.

원로배합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 화공철로 운영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 생산원가를 낮추는 데 필요한 조건들에서 중요한 인자는 무엇인가, ...

탐구의 열정적인 청강자들의 질문이 연속 강사에게로 집중되고있다. 강사가 실례를 들어 가며 알기 쉽게 설명해가 청강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들의 의견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함경남도림업관리국에서

수출이 할 수 있는 나무를

최근 함경남도림업관리국에서 진행되고있는 기능공들의 경기가 주목된다. 벌목, 공부, 수송, 구조제작 등 여러 부류로 나뉘어 벌어진 이번 경기에서 보다 이색적이었던 그 조직목적이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림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립업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꾸준히 학습하며 실천투쟁에서 자신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관공정기의 일꾼들은 이번 대회에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경기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선진생산을 위한 열의와 열정을 높여주는 문제가 생산실현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는 자각을 심어주는 계기로 되었다. 데 보다 큰 의의가 있었다.

같은 조건에서 누가 더 많은 나무를 생산하였는가를 겨룬 벌목경기, 운반량과 운제거리로 승부를 겨룬 수송경기 등 다채롭게 진행된 이번 경기과정은 통해 기능공들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얼마나 상승하였는가를 알게 되었다.

함경남도림업관리국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생산적열정의 중요한 방도인 하나라 할 수 있다.

본사기자 심철철

첫 원격교육대학졸업생

생 산 공 정 의 현대 화를 위 해 지혜 를 합쳐 간다.

첫 원격교육대학졸업생

뜻은가고 묻는 동무들에게 그는 말했다.

《하루머리 최근과학기술을 소유한 지식형의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생산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에 그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 힘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범은 모두에게 피라게 배우고배워 집단적 열정을 받는다. 로동자발명가, 로동자창조고안 명수가 되려는 불같은 마음을 본사기자 리철옥

강서분부기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

제품에 비결 애국의 마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각종 분부기를 광범 생산하고있는 강서분부기공장을 찾았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낭식수압분부기, 배낭식미분부기를 비롯한 각종 분부기들과 함께 농촌에서 절실한 필요한 농기구들도 생산하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흔을 빛나는 로적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이고있다. 리호유지배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현장으로 향하였다.

그는 자체선별로부기 사출, 제품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공정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생산의 첫 공정은 자체선별장에는 원료가 쌓여있었다. 부직 놀라와하는 우리에겐 한 로동자는 공장에서 각종 분부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 어떤 면에서든 손이 내릴것없었다.

《부직된 원료원천이 있고 우리의 미덕은 기술형에 있는 데야 무엇때문에 남에게 손을 내밀것없습니까.》

우리의 눈치를 밝히며 학습에 참가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날 지배인은 종업원들앞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분부기는 우리 공장의 얼굴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만들어도 공정의 명예를 걸고 팔십몇 만들어야 하며 그러자면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하며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그것은 후대들에게, 조국앞에 몇몇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전에 중요한 가를 알았다는 보람 한 일이며 당이 맡겨준 혁명소임을 지키고 빛내는 사업이라는 것을 깨달은 종업원들은 그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에도 망라되어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지금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분부기를 비롯한 농구기들은 전국의 농장들에서 호평을 대한다. 그 비결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우리 공장에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몇몇이 자부할 수 있게, 100% 우리들이 조 만든 제품이라고 자랑할 수 있게 정성을 기울이고 향심을 바친대이다.

은 나라의 모든 일터에서 이데올로기 후대들에게, 조국앞에 자기들의 명과 열정이 깃든 창조물을 내놓는다는 심정으로 제품마다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야 할 때 부강한 메달은 얼마나 앞당겨지게 될것인가.

본사기자 오은별

대중체육사업을 방법론있게

모범체육시청호쟁취운동으로 들끓는 평성시에서

경험을 적극 살리면서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시의 대중체육사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설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공화국창건 일흔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모범체육시청호를 쟁취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모두가 적극 호응해나갔다. 그날 책임일꾼은 모범체육시청호쟁취운동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기상을 알차게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후를 밝혔다. 그후 시에서는 모범체육시청호쟁취운동은 더욱 힘있게 내밀었다.

우선 시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속에 대중체육의 중요성과 의의를 더욱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의 함께 대중체육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도 파세했다.

리영철, 김정근, 최현철 등 부를 비롯한 일꾼들은 올해의 첫 체육의 날 운영을 의의있게 조직하는데 큰 힘을 냈었다. 이날 시인의 곳곳에서는 대중체육활동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시경기판별, 공경, 기업소별경기는 물론 협동농장들과 노년층들의 경기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체육경기가 벌어졌다.

하나와 같이 운동복을 पह치며 고난이 많은 단위의 종업원들을 대중물동체조와 건강태도들을 진행하면서 집단의 단결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평성시에서

평성시에서

그러면 대중의 열의에 맞게 조건보장을 따라세를 따라야 대중체육사업에서 우량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시에서는 이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었다. 모든 단위에서 체육기자재를 늘려주기 위하여 대중체육사업에 힘입어 체육기자재의 보급을 늘려나가기에 노력하였다. 시에서는 해당 일꾼들을 단위들에 내보내어 체육기자재준비정형을 료해하면서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일꾼들은 체육기자재를 갖추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하는 단위가 있는가 하면 대중의 체육열의는 높은데 체육기자재의 부족으로 애를 먹고있는 단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시에서는 먼저 교육, 보건 등 부문별 체육기자재전시회를, 다음에는 모든 단위의 단위들이 다 참가하는 체육열의가 더욱 고조되었다. 어느 단위에서든 일꾼들이 앞장

